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28호

성령강림 후 여섯째 주일

2020년 7월 12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성령의 빛 | 정명오 편집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신실하신 주여 우리를 불드소서(D. Buxtehude)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 후 여섯째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고전 6:11),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요 4:24).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회 중: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목 사: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회 중: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 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목 사: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회 중: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울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목 사: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쁨입니다.

회 중: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아멘(시 119:105-112).

경배찬송

183장(빈 들에 마른 풀같이)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을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경동찬송 12장) 다함께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침묵의 기도

.....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 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 하신(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응답송

회 중: 아멘.
할렐루야(경동찬송 6장) 다함께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레 할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2번)

말씀

구약의 말씀

창세기 25:19-26 1부: 전진표 집사
2부: 박찬호 집사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 고, 이삭은 마흔 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아람의 아람 사람인 브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 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

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예수 살이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로마서 8:1-6 **1부: 확언선 집사**
2부: 진미라 집사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다함께**
 생수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13:1-9, 18-23 **목사**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짜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육십 배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짜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결실을 낸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다함께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김남강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Swedish Folk Melody) ... 1부: 안채연 교우
샬롬(김도현 곡) 2부: 김정원 집사

설교 “우리는 어디에 뿌려진 씨인가?”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204장(주의 말씀 듣고서)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경동찬송 37장)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믿음 터옥 주소서(W. J. Kirkpatrick)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 ▶소천: 故 김대청 집사(향년 82세 / 김춘자 권사 남편, 6월 27일(토) 소천, 6월 29일(월) 발인)
故 김종열 성도(향년 82세 / 김일수 집사 부친 · 김혜선 집사 시부, 김영우 어린이 조부, 6월 30일(화) 소천, 7월 2일(목) 발인)
- ▶임명: 김영주 집사(East Carolina Univers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부교수 승진 및 종신교수)
이태호 교우(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2. 다음 주일(7월 19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여정성 장로	1부	차형태 집사 · 정성휘 권사	2부	정상욱 집사 · 서주영 집사

특별봉헌 6월 28일

감사헌금

강여진(감사), 김강중 · 이온표(감사), 김민정(장/십일조), 김범수(감사), 김상진 · 고순희(부모님 추모), 김수평 · 임문규(범사), 김정애(감사), 김자옥(십일조), 김호 · 서미희(가족을 돌보시는 은혜), 박영미(감사), 박은경(감사), 박진호 · 노진숙(하나님 은혜), 박찬순(십일조), 심재윤(장학금 되돌려 드림), 윤기호 · 신은애(하나님 은혜), 이권희 · 주미영(감사), 이인순(주님 은혜), 이태호(감사), 임성호 · 조경아(범사), 정영숙(주님의 은혜), 채수일 · 김경숙(십일조, 범사, 자녀를 위한 소원), 최정옥(손자 박기표 개업감사), 최준식 · 강혜정(최하람 음악회 감사), 함천진(주님 은혜), 무기명(감사)

■ 예배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경동어린이집	사도행전 28:31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사도행전 28:28-31	거침없이 담대하게	박재준 전도사
중·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사도행전 28:23-31	복음을 널리 전해요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사도행전 28:17-31	이방 사람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	박선교 목사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사무실(T. 02-2274-0161)

주일예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KF80 이상 권유) 필히 착용 후 입장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

주일예배 영상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다음 주일 말씀

7월 19일(성령강림 후 일곱째 주일)

성 경: 구 약(창세기 28:10-19a)

서신서(로마서 8:18-25)

복음서(마태복음서 13:24-30)

설 교: "함께 자라는 밀과 가라지", 채수일 목사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1.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2.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3.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4. 주 믿은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1.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2. 반가운 빛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3.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4.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흠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후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명 주옵소서 아멘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3.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별 주리
(후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경동찬송 37장)

1.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그 이름 그 나라 땅위에 오소서 거룩한 그 이름
2. 일용할 양식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거룩한 그 이름
3. 유혹을 멀게 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거룩한 그 이름
4. 나라와 권세와 영광 거룩한 그 이름 하늘 아버지께 있도다 거룩한 그 이름
5.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그 이름